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 의미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udy of the Small Theater of Traditional Dancing as a Cultural Welfare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이 대중들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차후 전통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을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다. 연구대상은 전통춤 전공자로 15년 이상 전통춤 공연경력을 지닌 7명을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줄 수 있으며,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 전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또한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관객은 현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관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통춤 공연을 많이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춤이 대중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공연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전통캐릭터 발굴을 통해 전통춤 이미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케팅도 필요하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은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공연장을 마련해주고 문화복지적차원에서 관객들에게는 질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의 의미는 모든 대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보편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전 계층, 전 연령층이 골고루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Korean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s in small theaters a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orean traditional dances, as cultural welfare, are expected to be attractive to the public and our cultural heritage is expected to be inherited from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Korean traditional dancing to be supplied to the public as a Traditional Cultural Welfare Program.

A qualitative approach was taken to best achieve the aims of this stud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July 10th to September 1st, 2016, using in-depth interviews. Seven Korean dance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in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in small theaters is necessary in terms of providing concert halls to local cultural artists and high quality performances to audiences as traditional cultural welfare. The traditional dancing performance in small theaters as cultural welfare will provide a platform to enjoy various traditional cultures across all ages and all class levels of the society in a universal dimension.

Keywords : Cultural Welfare, In-depth interview, Qualitative approach, Small Theater, Traditional Dancing.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600-6520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May 17, 2017

Revised May 31,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최근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소극장은 극문화뿐만 아니라 춤 문화 특히 전통공연의 중요한 예술적 진원지가 되었다 [1]. 그러나 아직 전통춤이라 하면 관객들이 공연을 어려워한다. 현대인들의 리듬에 맞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다 등 갖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객들에게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전통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며 관객과의 감동과 교감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김태원(2015)은 소극장공간은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 즉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매우 자연스럽게도 즉각적인 교류 혹은 침투감에 바탕을 두고 펼쳐지는 예술공간이라 하였다.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을 통해 거리감있게 생각되었던 전통춤에 대한 문화적 거리 격차를 줄이고 전통춤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엄격한 인상을 주는 것을 탈피하여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전통문화소외계층에게 전통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무용의 관심증가와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방안으로 전통무용의 소극장공연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프로그램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복지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다. 문화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란 환경 속에서 사람의 물질적, 정신적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복지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사회현상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 인식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는 특정 시대, 세대를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아니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문화와 복지의 결합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에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정책으로 문화적 배경에 복지적 시각을 결합하였다. 문화에 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경제발전과 국민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복지와 결합한 문화측면에 관심이 커지면서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다. 문화복지는 문화소외계층의 최저 문화생활을 통해 문화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와 창의력을 개발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술적측면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보고서 및 논문에서는 문화복지 개념이나 문화복지 실천 주제와 프로그램 내용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4]. 최근의 문화복지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측면에서 문화 복지적 입장을 바라보아야한다.

2.2 전통춤

우리나라는 한국 전통춤의 보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전통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춤은 옛날 춤이라는 인식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5]. 관객들은 외국의 무용, 연극 등에는 열광을 하지만, 정작 한국 전통춤은 지루하다. 촌스럽다. 어렵다 등 문화활동으로 찾아가기에는 거리감을 두는 공연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선입견에 전통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후 전통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통의 맥과 주체성을 찾기 위해 신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6].

전통춤은 우리나라의 풍습을 반영하고 대중적 정서가 넘칠뿐만 아니라 춤가락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추구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 우리나라 전통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한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흥과 멋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전통춤의 표현은 외적인 표현보다는 내적인 멋을 나타내는 것에서 맛과 멋을 찾을 수 있다 [6]. 전통춤은 우리 민족의 삶이며 역사를 보여주는 몸짓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이 대중들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차후 전통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전통춤이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8]. 현상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사물, 사건 등에 의한 경험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방식과 의식에 대한 연구이다 [8,9,10]. 즉, 현상학은 일상 세계의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한 연구이며 이러한 일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동시에 이러한 사건들이 창출하게 되는 의미의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은 지식은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이론에서도 제시되었다 [8,11].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충분함, 연구 참여자의 적절성을 위해 전통춤 전공한 전공자로 15년 이상 전통춤 공연경력을 지닌 전문가 7명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이에 동의를 구한 후, 방문 면담일자를 정하고 방문하였다. 면접시간은 연구 참여자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면담 횟수는 1~3회였으며, 1회 면담 시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의 시간동안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방적이고 구조적화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추어 질문 목록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1차면담에서는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2차 면접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특정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자의 동

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전사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ender	Age	Career	Major
1	Female	53	20	Traditional korean Dance
2	Female	47	30	Traditional korean Dance
3	Female	50	35	Traditional korean Dance
4	Female	49	25	Traditional korean Dance
5	Male	47	35	Traditional korean Dance
6	Male	54	30	Traditional korean Dance
7	Male	65	45	Traditional korean Dance

4. 연구결과

4.1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의 의미

4.1.1 문화유산을 알리는 장(場)

한국 전통춤은 우리 민족적 정신을 응축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정신과 고유한 얼과 가치를 지니며 문화유산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문화유산은 세대를 거쳐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며 자산이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국가는 이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극장에서 전통춤을 공연함으로써 해서 대중들에게 전통을 알리고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지요. 우리 춤에서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지요. 예를들어, 기원무는 백성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왕과 왕비가 정성을 다해 추는 축원무인데, 이 춤도 춤을 위한 몸짓이 아니라 우리 백성(민족)의 애환과 한을 담아 춤을 추고, 그것을 공연장에서 공연자가 설명해주며 춤을 보여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사례2).

춤은 나의 인생이자, 즐거움이며 낙인데 관객들과 항상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들은 전통을 고루 하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지요. 작은 공연장에서 전통춤에 대한 역사를 알리며 내가 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해요(사례6).

4.1.2 소통과 교감하는 장(場)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추는자의 손짓, 발디딤, 시선 등 모든 행동이 보는 이에게 전달되어 청중이나 관객의 시선을 압도화하게 된다. 즉 교감을 나누며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이를 김태원(2015)은 ‘기호화’라고 하였다. 소극장에서 추는자와 보는 이 사이의 자연스럽고 친밀한 교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소극장공연은 공연자와 관객과의 격이 없는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춤꾼의 동작이 보는 이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이는 몸짓언어로서 관객 혹은 청중과 소통하게 된다.

전통춤을 보면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신명이 느껴져요. 마치 제가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저에게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뭘랄까. 공연자가 손끝을 관객을 향해 내밀 때 꿈과 현실세계와의 만남을 가지는 느낌이 들지요(사례1)

살풀이춤을 보여드리는데 앞에 앉아계신 부인께서 손수건에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지요. 살풀이가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공연을 보여드리면서 관객의 아픔과 답답함을 어루만져 줄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극장에서는 느껴 볼수 없는 느낌이지요(사례3).

전통공연을 즐기다 관객들이 흥이 날 때 추임새도 넣고, 몸짓도 같이 하고요. 그것이 교감과 소통이 아니겠어요(사례6).

4.1.3 현장감을 느끼는 장(場)

소극장이라는 공간은 ‘환상적인 상징주의’를 배격한다. 대극장 공연에서는 추는자의 동작은 조명과 장치 등에 의해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무용수와 관객과의 거리는 신과 교감하는 듯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 반면, 소극장에서의 무용수의 동작은 사실성을 띄며 무용수들의 역동적 모습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으로 관객과 무용수가 공동참여자라는 느낌을 들게도 한다. 즉, 소극장에서의 동작은 동작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다. 무용수의 손짓과 발짓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에 잡힐 듯한 공연으로 현장감을 높이며 전통공연의 흥미를 증가 시켜 전통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게 한다.

춤을 춘다는 것이,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관객이랑 같이 호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극장은 객석이랑 무대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좀 피부로 와 닿는 호흡보다는 사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질감없지않아 사실 있거든요(사례5).

이번 소극장 공연에서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옷의 색깔이라든지 무용수들의 손끝의 움직임, 땀 흘리는 땀방울 이런것들이 되게 좋다고 표현을 많이 모든 사람들이 보신 사람들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극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관객들이 평소에 느끼지 않던 제가 많이 느끼지 못한 그런 기발한 말들이 나오는걸로 봐서는 소극장의 전통춤은 현장감이 있어요(사례6).

4.1.4 혼연일체화의 장(場)

소극장 공연에서 무용수는 어떤 춤판을 이끌고자 하는 내적 의도에 따라 관객의 감흥을 이끌어 낼수도 있고 신명나는 공연을 만들수도 있다. 전통춤 무대를 신명나게 만드는 것은 무용수들의 관객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다 할수 있다.

소극장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추임새라고 하지요. 추임새도 받아서 신명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그런면에서 저는 좋았어요. 소극장 공연이..

특히나 그것이 전통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전통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의미있는 공연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사례 3).

정신적 무한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관객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아지경에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멈춘듯한 느낌이 들어요(사례7).

4.2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활성화 방안

4.2.1 관객이 공유할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작품 기획, 개발, 보급

전통춤 공연을 많이 접하고 관람할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턱을 낮춰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스

토리가 있는 전통공연으로 관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한 공연은 관객을 공연장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는 전통춤의 기원, 관람포인트를 설명해줌으로써 전통춤이 낯선 일반시민들에게 흥미를 돋우는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춤을 추는 입장에서 춤의 내력이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관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팜플렛을 배포한다고 해도 객석의 어두운 자리에서 읽기란 힘들지요.

그런데 사회자가 전통춤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일반시민 입장에서 전통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네요(사례 1).

큰 극장에서 으리으리 하게 돈 비싸게 해서 관객들을 모으려고 하니깐 관객이 안가려고 하는거고 관객들이 무용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 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무용관람을 아직도 한번도 못한 사람들이 많대구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저는 아직도 무용은 저변확대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변확대의 기본은 우리주변인 것 같아요. 저변이 뭐예요. 우리가 넓은 광범위한 저변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깐 애쓰니까 그게 안되는거지. 우리주변에 정작 전통춤을 한번도 못본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먼저 극장으로 데리고 오는게 우리가 저변확대의 밑거름을 아닌가 생각을 해요(사례6).

한 극장에서 3일을 공연했다면 다음 극장에서 옮겨서 3일을 하고 로테이션 소극장마다 연계가 되어 사실 한번하고 아깝잖아. 정말 한번하고 말기는 너무 아까워요.

돌아가면서 소극장마다 춤판을 많이 열어주기를 하는 바람이 있지요(사례 7).

4.2.2 대중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의 공연

전통춤이 대중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의 공연이 필요하다. 전통춤을 관람에만 그치는 소극적인 활동보다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사업과 전통문화체험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

공연소식이나 정보를 휴대전화나 메일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전통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연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통춤 캐릭터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생활용품에서도

전통춤 캐릭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통문화 혹은 전통춤을 친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연에 대한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통공연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사례2).

전통춤 공연을 보고 전통복장을 입어보고 체험해보는 이벤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관람하러 오는 가족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시도 괜찮겠구.

전통춤과 함께 하는 전통복식의 이해도 공연관람의 흥미를 배가 시킬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사례4).

다양한 전통춤 캐릭터를 발굴하여 각종 용품에 새겨 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작게는 엽서나 스티커, 크게 보면, 어린자녀들이 가지고 다닐수 있는 인형 제작, 마치 청소년을 위한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듯이 전통춤 캐릭터 발굴은 전통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죠(사례5).

4.2.3 융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노력

소극장 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연 전 관객들을 위한 편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을 접하는 대중들에게는 전통이 어렵지 않게 문턱을 낮게 하며 전통프로그램은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한 걸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가 있는 편의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전통춤 공연을 본다. 멋있지 않을까요? 문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전통춤 관람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카페를 같이 여는 것도 필요해요(사례3).

전통춤을 관람하고 전통춤을 배우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전통춤을 배울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연 관람과 배움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통춤 보급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전통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사례 7).

5.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전통춤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줄 수 있으며,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 전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또한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관객은 현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관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통춤 공연을 많이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객의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춤이 대중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공연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전통캐릭터 발군을 통해 전통춤 이미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케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의 의미는 문화복지에 대한 모든 대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보편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 계층, 전 연령층의 국민이 골고루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에 대한 의미는 전통춤이 관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며 불거리, 즐길 거리로서 대중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무용예술도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Tae Won Kim, "Two articles on the aesthetics of a small theater dance performance-Dance phenomenon of 1986", *The performing arts & film review*, 91, pp. 106-111, 2015.
- [2] Tae-Seon Cho, Na-Rae Bae, "A Study on Cultural

Activity among the Baby-boom Generation",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470-47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470>

- [3] Bo Rahm Suh, Ha Rim Jang, Taik Soo Hy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Cultural Welfare Policy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29, pp95-124, 2011.
- [4] Taik Soo Hyun, "A Study on types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cultural welfare", *Korean Studies*, 38, pp. 491-519, 2011.
- [5] Hyun Sung Park, Shik Heo,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tivation Factors for Partic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Ar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16, no. 1, pp. 73-102.
- [6] Mi Sook Song, Hye Soon Song, "Humanistic Approach and Basic Dance Motions for Integrated Korean Da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Dance*, vol. 32, no. 1, pp. 133-162, 2013.
- [7] Duck Kyung You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offering options about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 *Journal of Korean Dance*, vol. 28, no. 2, pp. 57-76, 2010.
DOI: <https://doi.org/10.15726/jkd.2010.28.2.003>
- [8] Min-Jung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Meaning of Children's Music Activity",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5, no. 2, pp. 55-82, 2002.
- [9] Creswell, J. W., *Research design: Qualitative &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1994.
- [10]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1991.
- [11] Glassersfeld, E. V., *Knowing without metaphysics: Aspects of the radical constructive positions*.(p. 21). New York: Longman, 1989.

배 나 래(Na-Rae, Ba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복지, 융합컨텐츠, 문화산업